

Jesse Rodenbiker, *Ecological States: Politics of Science and Nature in Urbanizing China*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2023). 264 pp.

설재희†

중화인민공화국은 2012년 이래 “생태문명(ecological civilization, 生態文明) 건설”을 국가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고 국가 주도의 환경 보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러한 중국 생태문명 건설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그 목표가 단순히 환경 보호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중국공산당 총서기이자 국가 주석 시진핑(習近平)이 “맑은 물과 푸른 산이 곧 금산(金山)과 은산(銀山)”이라고 역설한 바 있듯, 환경과 생태가 국가의 귀중한 자산이며 환경 보호가 곧 국가 생산력의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이 생태문명 건설의 핵심을 이룬다. 환경 파괴를 발판 삼아 발전해 온 지난날을 뒤로 하고 녹색 발전, 즉 지속 가능한 발전을 꾀함으로써 새 미래를 건설하겠다는 다짐이기도 하다.

중국이 국가 차원에서 환경 보호 및 지속 가능한 미래 건설을 다짐한 것은 미국 등 다른 강대국이 전 지구적 기후 변화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루며 세계 각지에서 관심과 지지를 얻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국가 주도의 하향식 의사결정에 기반한 중국의 생태문명 건설이 시민들의 강제적이고 비자발적 이주, 개인 및 기업에 대한 감시와 통제 등 여러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러한 비판

† 매사추세츠 대학교 앰머스트 캠퍼스, jseol@umass.edu

은 중국의 접근이 “권위주의적 환경주의(authoritarian environmentalism)”의 성격을 지닌다고 지적한다.¹

제시 로덴바이커(Jesse Rodenbiker)의 『생태 국가들(Ecological States)』은 국가 주도로 시행되어 온 생태보호지구 건설 사업이 농민들을 생태 이주(ecological migration, 生態移民)의 대상으로 삼아 도시민으로 편입해 온 현상에 주목한다.² 저자는 이러한 과정이 권위주의적 방식을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그 근본이 되는 원인이 단순히 권위주의적 국가 체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태학 자체에 내재된 발전주의적 지향, 기술관료주의적 사회·환경 정치, 지방 정부들의 기회주의적 정책 활용 등에서 기인했다고 본다.

이 책에서 생태학은 단순히 살아있는 유기체와 물리적 환경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 그 이상을 의미한다. 생태학이란 국가, 사회, 자연 간의 중첩된 관계를 표현하는 복합적인 기표이자(2), 지식 생산의 주체, 장소, 상황 등 맥락에 따라 다중적인 성격을 가지는 상황적 지식(situated knowledge)이라는 것이 저자의 정의이다(27).³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저자는 중국의 생태학이 ‘생태-발전주의적(eco-developmental)’ 논리와 미학을 특징으로 한다고 주장한다.

책의 1장은 생태-발전주의적 논리가 등장한 역사적 배경과 이론적 기원을 살펴본다. 이 장에 따르면 중국에서 생태학이 근대 과학의 한 분야로 처음 등장한 20세기 초부터 생태학은 자연의 ‘심미적’ 측면을 강조하는 미학과 관련되어 왔으며, 이러한 측면은 기술적 접근을 통해 원시생태(primitive ecology, 原始生態)에 가까운 모습으로 경관을 미화(beautification)’하는 것에 방점을 둔 현재 중국의 생태문명 건설에 영향을 주었다. 저자는 1980년대에 크게 부흥한 시스

1 혹은 중국이 “환경주의적 권위주의(environmental authoritarianism)”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환경주의라는 목표를 위해 권위주의를 수단으로 사용해왔다는 것이 “권위주의적 환경주의”의 입장이라면, “환경주의적 권위주의”는 반대로 중국이 권위주의적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환경주의라는 수단을 내세웠다는 관점을 강조한다. 환경주의적 권위주의를 주장하는 대표적 연구로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Yifei Li and Judith Shapiro, *China Goes Green: Coercive Environmentalism for a Troubled Planet* (New York: Polity Press, 2020).

2 저자는 중국의 생태 레드라인(生態紅線), 생태보호구(生態保護區), 도시생태통제구(城市生態控制區)의 개념을 통칭하는 생태보호지구(ecological protection areas)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3 Donna Haraway, “Situated Knowledges: The Science Question in Feminism and the Privilege of Partial Perspective,” *Feminist Studies* 14:3 (1988), 575-599.

템 과학(systems science) 또한 생태문명 건설의 목표인 지속 가능한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중국의 시스템 과학자들은 생태계를 최적화하기 위한 기계적, 기술적 방법들을 고안함으로써 경제 성장과 생태계의 평형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는 생태-발전주의적 믿음을 형성해왔다.⁴

2장에서 저자는 직접 현장조사를 시행한 윈난성(雲南省) 쿤밍(昆明)의 생태 보호지구화를 사례로 생태-발전주의적 미학이 다른 아닌 농촌을 환경 오염의 주변으로 낙인찍는 과정을 분석한다. 저자는 윈난성의 환경 과학자들과 도시 계획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들이 선택적 자료 조사와 특유의 미학을 근거로 농촌을 낙후되고 오염된 공간으로 여겨왔다고 보았다. 즉, 도시에서 배출되는 공업 폐기물 또한 환경 오염에 상당 정도 기여해 왔음에도 농업 생산 중에 발생하는 농업 폐기물, 농촌의 분산되고 무질서한 경관을 주요 문제로 지목해 왔다는 것이다. 저자는 바로 이러한 시각 아래 생태보호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농민이 수대에 걸쳐 거주해 온 토지와 생업으로부터 분리되어 인근의 새로 지어지고 있는 고층 아파트 단지로 이주하는 대규모 “생태 이주”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집약된 주택 단지로의 농민들의 집단 이주는 곧 전통적인 농촌이 해체되고 많은 농민이 도시 주민으로 편입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제3장에서는 생태 “영역화(territorialization)”가 어떻게 중국의 인문지리적 지형을 바꾸어 왔는지 지방 정부의 역할을 분석한다. 2014년 중앙정부는 새로운 도시화 계획을 통해 각 시(市) 내 20퍼센트의 토지를 생태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시 정부들은 이 같은 정책을 환영했는데, 생태보호구역 건설 시 중앙정부로부터 지원금을 확보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개인 및 국가가 소유하던 주택과 토지를 매입하여 시 정부가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러한 경제적 기회를 위해 많은 지방 정부가 경쟁하듯 환경 정책에 투자하고 있으며, 정책 운용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기업이 생태보호구역 내에 관광

4 기술공학을 통해 환경생태를 최적화하여 무한한 경제성장을 꿈꾸는 시스템 과학의 기술낙관주의적인(techno-optimistic) 사고가 어떠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Sigrid Schmalzer, “Prometheus and the Fishpond: A Historical Account of Agricultural Systems and Eco-Political Power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Made in China Journal* 7:2 (2022), 124-131.

단지를 직접 운영하거나 부동산을 재임대하며 미래 수익을 거둘 것을 예상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상의 세 장은 책의 전반부인 1부를 이루며 환경 과학자들과 중앙 및 지방 관료들이 공유해온 생태-발전주의적 논리와 미학이 국가 환경 거버넌스의 기반을 이루어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책의 후반부인 2부에서는 생태보호지구 지정이 농민들의 삶에 미친 실제 영향을 조사한다. 저자는 장기간 현장 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국가의 하향식 정책 시행이 결코 단일한 방식으로만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농민들은 적극적인 행위자로서 정책을 능동적으로 활용하거나 또는 저항하면서 새로운 삶을 모색해 왔다.

첫 장인 4장은 거주지 및 농지가 생태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삶의 터전을 잃고 새로 지어지는 고층 아파트 단지로 이주를 앞둔 생태 이주의 대상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많은 기술관료들이 도시 이주가 농촌 주민들의 경제적 전망과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것과 별개로(73), 이주민들의 이야기는 훨씬 더 다양한 방식으로 이들이 정책을 이해해 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어떤 이들은 토지에 얽매어 끝없이 농사를 지어야 했던 삶에서 벗어나 도시민으로서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어떤 이들은 “농부는 농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믿음으로 다른 지역의 농경지를 임대하여 농민으로서의 삶을 지속할 것을 다짐한다(111). 또한 동시에 많은 이들이 보상을 충분히 받지 못한 데서 오는 생활고, 새로 주어진 주택단지의 열악한 관리 및 미비한 시설 등에서 겪는 어려움, 생업의 기반인 토지를 잃고 도시 노동자가 되어야 하는 삶에 대한 불안함, 농촌 공동체의 해체에서 오는 고립 속에서 불균등하고 불확실한 경험을 공통적으로 겪고 있다.

5장에서는 어떻게 농민들이 농촌을 생태친화적인 공간으로 재구성함으로써 국가에 도전해 왔는지 살펴본다. 이 장은 생태보호지구 내 혹은 인근에서 농가락(農家樂)이라고 불리는 농촌 체험 레저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두 농민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이들은 중국 내에서 점점 더 고조되고 있는 “원시생태” 체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용하여 전통적 방식의 낚시배 타기 체험을 제공하고, 농촌 생활 박물관을 만들고, “생태적인” 신선 유기농 향토 요리를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등 농촌의 목가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퍼포먼스를 수행해왔다(155). 이들의 미학은 저자에 의해 농촌-생태적(rural-ecological)인 것으로 정

의된다. 이 농민들은 농촌을 생태 오염의 주범으로 보는 국가의 주류적 시각에 저항하면서 농촌을 생태 친화적인 공간으로 선보이려 노력한다. 이러한 점에서 농민들의 관점은 책의 전반부에서 다른 국가 관료, 과학자, 도시계획자 집단이 공유하는 생태-발전적 미학에 대항하는 논리라고 할 수 있다.⁵

마지막 장인 6장에서 저자는 마을이 생태보호지구로 지정된 이후에도 이주를 거부해 온 농민들이 결국 강제적으로 농촌을 떠나게 되는 과정을 추적한다. 시 정부 철거국은 한편으로 보상 및 이주를 거부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먼저 농민들의 농업 활동이 얼마나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지 과학적 데이터를 근거로 제시하며 설득하고(179), 다른 한편으로는 전기와 수도 등 설비 파괴, 주택이나 차량의 부분 철거,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감시 및 신체에 대한 위협과 공격 등 물리적 폭력을 행사해 왔다. 저자는 이러한 과정이 개인들을 주변 환경과 공동체로부터 이탈시켜 정치적 연대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고립의 군도(archipelagos of isolation)”를 형성해왔다고 설명한다.

이 책의 핵심 주장은 생태학이 정치 및 사회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책의 제목인 “생태 국가들”에서 국가의 복수형 표기는 중국의 환경생태 정책이 중앙정부와 다양한 층위의 지방 정부의 서로 다른 목표와 이해관계가 얽혀 작동해 왔다는 것을 강조한다. 중국의 사례는 생태학이 과학 지식 생산, 국가의 사회-환경 계획, 미학 등 다양한 차원에서 과학자, 관료, 시민에 의해 정치화된다는 점 또한 보여준다. 중국 정부의 생태화가 곧 도시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 것은 이 책의 또 다른 공헌이다. 이는 중국 정부가 2020년까지 중국 인구의 60퍼센트를 도시민으로 편입시키겠다는 정책을 세웠던 것과 궤를 같이한다. 농촌의 도시화와 함께 중국의 농업 생산에 찾아올 변화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나, 이는 이 책에서 다루는 범위를 뛰어넘는 주제이므로 다른 연구들을 읽음으로써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⁶

결론적으로, 이 책은 인문지리학적, 역사학적, 인류학적 방법론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중국의 과학과 환경의 정치학에 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한다. 저자는

5 한편 농촌의 특수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생태-발전적 미학과 방향을 같이하기도 한다.

6 예를 들어, Xiaowei Wang, “Spicy red in Shrimp Town: Smart farming and settler colonialism in Guizhou province,” *New Media & Society* 25:8 (2023), 1888-1912; Xiaowei Wang, *Blockchain Chicken Farm: And Other Stories of Tech in China's Countryside*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2020).

책의 말미에서 현재 중국 환경정책의 문제는 농촌을 환경 오염의 근원으로 보는 생태-발전주의적 미학, 지방 정부들이 토지 매입을 통한 세수 확보 등을 염두에 두고 생태보호지구 지정 정책을 기회주의적으로 활용하는 것, 생태 이주민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그들의 정서적, 물리적 터전을 잃은 채 사회적 고립을 겪는 것, 기존의 사회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것에 있다고 재차 강조한다. 이러한 한계를 인지하면서 농촌을 유지하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녹색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많은 대안들이 중국 내에서 제기되어 왔지만, 전국적인 규모의 논의의 중심을 차지하지는 못했다. 대신, 과학을 여러 환경 문제 해결의 만병통치약으로 보는 기술만능주의 혹은 기술낙관주의적 전망은 어느 때보다 더 심화되고 있다.

중국의 현재는 기술관료제에 경도된 다른 국가들이 환경주의를 국가 의제로 채택할 때 겪게 될 수 있는 미래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 책은 환경문제 해결에 있어 과학기술정책을 어떻게 입안하고 시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질문을 남긴다. 과학기술 지식에 기반한 환경정책은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는가? 중앙의 결정이 하향식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지방 정치는 어떠한 작용을 하는가? 시민들은 그러한 정책에 어떤 영향을 주고 받는가? 현대 중국의 생태문명 건설 프로젝트뿐 아니라 환경생태, 기술관료제, 과학기술정책의 입안과 시행, 도농 관계 등의 주제에 관심있는 독자들에게 이 책은 매우 유익한 읽기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